

경북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허용

베트남서 380명 입국 예정
전원 코로나 검사·2주 격리
농가서 고추·수박 등 수확

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력 이동이 사실상 막히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0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영양군 120여 농가에 배정돼 90일 동안 고추와 상추, 수박 수확을 한다.

영양은 고추 주산지로 재배면적이 1324ha에 이른다. 수박 106ha, 상추 51ha다.

계절 근로자 가운데 80% 이상이 고추 수확에 투입된다.

영양군은 이들이 입국 후 공항 검

역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용 버스에 태워 자연휴양림 등 격리 시설로 옮긴다.

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휴양림 등에서 2주간 격리한 뒤 이상이 없으면 농가에 배정한다.

농가에서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일을 한다.

도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8개 시·군에서 76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영양을 제

외한 시·군은 모두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양에서는 4월에 80명, 5월 이후 332명이 필요했으나 코로나19로 인원이 일부 줄고 입국 시기도 늦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확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하다”며 “영양군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동네방네



상주 중앙시장

상주시 전통시장서 동행세일 행사

상주시는 관내 전통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동행세일은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다.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으로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상주시도 관내 2개 시장이 참여하는 고객 사은행사와 시장별로 영수증을 모금해 일정 목표액 달성 시 보건소 및 소방서에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의료진 덕분에’ 릴레이 행사를 실시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쿠팡-경북도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 진행

5억 규모 즉시 할인 혜택 제공
상품 2000여종 최대 56% 할인



쿠팡과 경상북도가 또 한번 협력한다. 쿠팡은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규모만큼 고객에게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쿠팡은 지자체의 지원과 동일한 규모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기획전이다.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쿠팡과 지자체가 협력해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이번 기획전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5억 원 규모의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은 151개 경북 지역 업체의 상품 2천여 종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경북 지역 상품이 고객에게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쿠팡이 추가로 5억 원 규모의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1차 기획전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33% 증가했다. 1차 기획전에 참여한 경북 기업의 32%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곱팡이 제거제와 배수구 클리너 등 천연소재 기반의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오가닉 K는 지난 4월 1

쿠팡은 8일 ‘힘내요 대한민국 경북 2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 기획전에서 전년 동기대비 매출 1,802%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대송 오가닉 K 대표는 “힘내요 대한민국에 참여해 코로나19로 둔화했던 매출 상승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제류 상품은 대기업 브랜드가 많아 중소기업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쉽지 않은데, 쿠팡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힘내요 대한민국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며, “우수한 품질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4월부터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6월부터 시작한 ‘힘내요 대한민국’ 2차 기획전은 2020년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터뷰 배정철 KOMERI 신임 원장

1년간 노사갈등·횡령 등 내부혼란
“청렴실천” 내부적 요구 응할 것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KOMERI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한국조선해양기재연구원(KOMERI)을 이끌게 된 배정철 원장(57)은 연구원의 ‘정상화’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난 1년 가까이 KOMERI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노사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팀장급 직원의 해외출장비 횡령판결이 겹치면서 그간 쌓아온 명성에 흠집이 났다. 그런 만큼 지난 4월 원장 공모 이후 연구원 안팎의 시선은 새로 선임될 수장에게로 쏠렸다.

최근 취임식을 마친 배 원장은 어수선한 연구원 내부를 다잡고 선박기자재 업계 지원을 제대로 해낼 적임자로 꼽힌다.

해양대학교해사통신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기업체 경험은 물론 지난 2006년 KOMERI에 입사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산학연 각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원 책임자로서뿐 아니라 구성원 가운데 최연장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부 혼란상황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그는 “노사상생과 투명경영, 청렴실천이라는 내부적 요구에도 최대한 빨리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장 체제의 KOMERI호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험을 가능하도록 긴급시험트랙을 운영하고 근거리 밀착형 기업수탁 지원도 강화하려 한다. 특히 지식경영 플랫폼을 구축,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KOMERI의 위상에 걸맞는 기술개발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근 조선기자재 분야는 친환경·스마트 선박기자재에 대한 연구가 핵심인데 관련 분야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연 협동과정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허의원 기자 bsmorning@

전남지역 ‘먹노린재’ 전년비 19.8% 급증

(월동해충)

전남도 농업기술원
“벼 재배농가, 적기 방제 중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겨울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월동해충인 먹노린재 발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벼 재배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8일 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먹노린재가 도내 21개 시군 7천 797ha(벼 재배면적의 5.2%)에서 발생해 지난해보다 19.8%

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먹노린재는 낙엽속이나 잡초 밑에서 겨울을 보낸 뒤 모내기 시기에 논으로 이동해 벼의 잎과 줄기를 해치며, 벼 줄기 속 어린이삭을 흡즙해 반점미의 피해를 주고 있다.

먹노린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답 이동 최성기인 7월 상순에 논 두렁과 논 가장자리 위주로 약제를 살포하며, 벼 어린시기 논바닥까지 물을 댄 뒤 살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일자리 창출 위해 888억 투입

경북형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
실직자·청년 등 참여 대상자 확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기 위해 888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극복 경북형 희망일자리’ 사업을 올해 말까지 펼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1개월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청년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

은 참여가 제한된다.

경북형 희망일자리사업은 ▲희망가꾸기 사업 ▲경북 클린안심 사업 ▲경북 일자리 희망인턴 프로그램 ▲경북 내고장 생활안전 지킴이 ▲학교도 우미 지원 사업 ▲교통안전 지킴이 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진다.

/경북=문봉현 기자

구례학사, 대림동에 새 등지

전남 구례군의 인재 양성 요람인 구례학사(사진)가 서울 시 대림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서울에 운영 중인 구례학사를 기존 강서구 화곡동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이전했다.

대림 구례학사는 대지 416㎡, 연면적 1481.09㎡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림역에서 도보로 7분,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원룸형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전자레인지, 침대, 책상, 의자, 욕실 등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입사정원은 1인 1실 24명으로 기존 입학생 외 10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전남=양수영 기자